

가야사에서 복천동고분군의 위상과 역할*

김두철**

| 목 차 |

- I. 머리말
- II. 4세기대 복천동고분군의 위상과 역할
- III. 5세기대 복천동고분군의 위상과 역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고대에는 수영만을 앞에 둔 해상왕국으로서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전기가야의 중심지이자 맹주국의 묘역이었다. 하지만 기록에도 전하며 다소 우월하였던 김해세력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고구려군 남정 이후 5세기 전반대에 후기가야에 들어서는 영남지역의 신문물 창달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5세기 후반대에 빛을 보게 되는 신라 귀족문화의 밑거름이 되면서 그것에 묻혀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더러는 신라문화에 편입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론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본고가 기획되었다. 필자의 기존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가야사에서의 복천동고분군의 실제 위상과 가야와 신라의 성장과정에 끼친 영향력과 역할을 재평가하였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siwonkdc@naver.com

그 결과, 4세기대(전기가야)의 복천동고분군의 피장자 집단은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묘제나 부장품인 토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의 제의를 행하면서도 엄연히 이질적 집단이었다. 대성동고분군의 지배자 집단이 외래적 성격이 강하다면 복천동고분군은 토착사회에 기반한 안정된 집단으로서 결국 전기가야는 외래집단인 대성동고분군과 토착집단인 복천동고분군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양 집단에게는 공통성과 이질성의 양면이 상존한다.

5세기대(전환기와 후기가야)의 복천동고분군 집단은 사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며 새로운 묘제나 유물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이후 고총고분시대의 후기가야와 신라 문화의 성립뿐만 아니라 왜의 고분시대 중기문화 성립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5세기 후반대 이후는 세력이 약화되지만 연산동고분군과 함께 가야 세력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간다.

주제어 : 복천동고분군, 대성동고분군, 가야, 신라, 연산동고분군, 동래패총, 고총고분, 수장묘, 전사집단, 신식도질토기, 석곽묘, 전기가야, 후기가야, 다라국

I. 머리말

복천동고분군은 전기가야의 핵심세력이다. 지정학적으로는 경주에 인접해 있고 전기가야 해체 후에는 신라문화 성립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아직 가야와 신라를 구분할 시기의 일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주된 활약 시기와 역할 때문인지 후기가야 세력의 일원이면서도 기록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후기가야의 주요 소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함으로써 전기가야 시기의 주요 행적마저 무시된 채 가야사에서는 잊혔거나 때로는 신라사에 묻혀서 고고학의 복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상에 처해 있다.

일부 학자는 부산의 고분 문화를 신라에 편입시켜 이해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가야니 육가야니 하는 주요 가야의 여러 소국들이 가야 역사 기간 내 내 존속하였던 것도 아니다. 대가야로 불린 고령의 가라국도 5세기 중엽경에 성립하여 562년 멸망될 때까지 불과 100여년을 존속한데 지나지 않는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야나 신라나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복천동고분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론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야 전·후기에 영남지역에서 활약하였던 복천동고분군 조영집단의 위상과 그 역할을 재조명코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복천동고분군 세력의 활약상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점들을 추출하여 각각 4세기대(전기가야)와 5세기대(전환기와 후기가야)로 나누어²⁾ 설명함으로써 가야사에서의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고하고자 한다³⁾.

II. 4세기대 복천동고분군의 위상과 역할

가야는 크게 전기가야와 후기가야가 있으며 전기가야의 쇠퇴 이후에 후기가야가 성립한다.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이 전기가야의 중심세력이 조영한 묘역이었다. 전기가야는 이 두 세력

-
- 1) 김두철, 『부산은 언제까지 가야였는가?!』,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1회 부산의 고대사』(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8, 41~42쪽.
 - 2) 고구려군 남정(400년)이 있고 대성동고분군에서 수장묘가 축조 중단됨으로써 전기가야가 해체되고 후기가야가 시작하기 전인 5세기 1/4분기의 기간을 '전환기'로 파악하였다. 이때는 과도적 신석도질토기가 출현하여 고식도질토기와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신석도질토기는 정형화한다.
 - 3) 이 글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가야사에서의 복천동 고분군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2018.11.9.)에서 발표한 다음의 글을 논문 체제에 따라 수정 가필한 글이다(김두철, 『가야사에서 복천동 고분군의 위상과 특징』, 『가야의 원류 복천동고분군과 부산』, 2018).

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당시로서 북천동고분군이 최상위급이었지만, 대성동고분군보다 열세로 인식하여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연맹의 하위집단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도 많다⁴⁾.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성동고분군과의 공통점은 물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던 차이점도 부각함으로써 세력의 정도 차이는 있어도 두 세력은 엄연한 이질 집단의 연합체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북천동고분군의 위상을 복구하고 그 속에서의 역할을 가늠코자 한다.

1. 가야 성립기(전기가야)의 맹주국

-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북천동고분군 -

가야의 성립은 가야 왕묘인 대성동고분군에 유력 수장묘가 축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⁵⁾. 물론 그 이전에도 무덤이 조영되고 있었으나, 이때의 무덤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결코 우월성이나 수장권 계승과 같은 연속성을 내세울 수 없는 규모와 성격을 띠고 있다. 동시에 유력 수장묘인 대성동29호묘가 축조되는 시점부터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의 질과 양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동 시기의 영남지역 어느 고분군에서도 볼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이며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하다.

4) 신경철은 낙동강하류역에서의 동래 북천동고분군과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정치연합체를 금관가야로 인식하고 이를 가야의 시작으로 본다. 따라서 5세기 전엽에 대성동고분군계열의 지배집단 소멸로 금관가야의 패권은 대성동고분군에서 북천동고분군으로 옮겨와 김해지역도 관할하면서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전엽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한다(申敬澈, 『三韓·三國時代の東萊』, 『東萊區誌』, 1995, 203~243쪽.)

5) 김두철, 『狗邪(金官)國 古墳文化的 이해』, 『加耶의 뿌리II』, (사)가야문화연구회, 2016, 97~111쪽.



그림 1. 구야국과 독로국의 최초 수장묘
(좌: 김해 대성동 29호분, 우: 부산 북천동 38호분)

따라서 대성동고분군에 29호묘와 같은 수장묘가 축조되기 이전의 선주민의 역사를 加耶 前史로 보고 그 이후를 가야사로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고고학에서의 평가이다. 설화가 곁들여진 문헌사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물질자료로는 와질토기문화에서 도질토기문화로 전환한 것을 지표로 할 수 있다.

북천동고분군에서 앞 시기와 차이가 나는 최초의 수장묘가 등장한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에 한정한다면 북천동38호묘이다. 부장품을 厚葬하기 위해 부곽을 따로 둔 주부곽식 무덤이다. 대성동29호묘의 조영이 3세기말인데 반해, 이 고분은 4세기 2/4분기에 비정되어 북천동고분군에서 수장 무덤의 출현은 대성동고분군보다 늦게 이루어졌다⁶⁾.

6) 토론회에서 신경철교수로부터 84호분 단계의 선행하는 수장묘의 존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필자는 현재로선 84호분의 입지적 특수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38호분은 부곽이 파괴되었음에도 입지는 물론 부장품 배치의 우월성 및 무엇보다 이후의 수장묘에 계승되는 관상을 채택한 점을 중시하였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성동고분군에서도 29호분에서 91호분까지 관상이 채택되지 않고 88호분 단계에서 관상이 채택되는 점들도 고려하면, 북천동고분군에서도 38호분보다 구릉 아래쪽 미조사 구간에서 84호분 단계의 수장묘 존재가 충분히 기대된다. 그 편이 북천동고분군을 이해하는데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4세기대에 두 집단 세력의 문화내용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洛東江河口域’의 세력들로 통칭되기도 한다. 그 공통점이란 수장 무덤의 조영에서 주곽과는 별도의 구덩이에 부장품을 위한 부곽을 마련한 주부곽식의 무덤을 채택한 점, 부장품의 주류를 이루는 토기 내용에서도 구연부가 꺾인 특징을 가진 외절구연고배나 손잡이가 달린 파수부노형토기를 지표로 하는 공통의 문화를 가진 점을 들 수 있다. 즉, 무덤과 부장품이란 장송의례의 국면에서 궤를 함께 하는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친연성이란 표현은 이 두 세력이 입지한 낙동강하구역을 벗어난 영남의 다른 지역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크게 묶어 ‘내륙양식권’으로도 불리는 여타지역에서는 무덤은 단독곽이거나 경주 등에서와 같이 주부곽식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세장한 구덩이에 주곽과 부곽이란 두 개의 널을 동시에 두는 전통을 가진다. 또 토기에서도 통형고배나 무파수노형토기를 지표로 한 광역의 공통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혹자는 ‘낙동강하구역’과 여타의 ‘내륙지역’을 두 개의 양식권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⁷⁾. 하지만 내륙양식권에서는 낙동강하구역의 토기가 보이지 않는 반면, 낙동강하구역에서는 양쪽의 토기문화가 모두 나타나는 여집합의 관계를 보이므로 양자를 별개의 양식권으로 보기도 하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가장 적당한 표현으로는 양자를 ‘中心’과 ‘周邊’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⁸⁾.

사실 4세기대에 낙동강하구역에서는 내륙의 여러 지역보다도 무덤의 규모가 훨씬 크고 부장품의 양도 풍부하며 선진요소를 기준으로 한 부장품의 질도 월등하다. 이는 신라의 도읍인 경주와 비교하더라도 예

7) 安在皓, 『慶州地域の初期新羅土器の検討』, 『福岡大學綜合研究所報』, 240, 2000.

8) 金斗喆,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 『港都釜山』, 19, 2003; 『前期加耶와 新羅』,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2010; 『高塚古墳時代の 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2016.

외는 아니다. 낙동강하구역은 물류의 집하소이며 선진문물이나 외래문물이 들어오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4세기대 낙동강하구역의 두 세력인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복천동고분군의 조영집단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시되었던 장의에서 서로 유대감을 가지면서 상호 동맹하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나눠 맡아서 하였던 유력 집단이었던 셈이다.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었던 시기는 가야 성립에서 두 세력의 연합이 와해되는 5세기초까지의 100여년 내지 길게는 150년의 기간이었다.

고령의 가라국(대가야)을 포함한 후기가야 제국은 대성동고분군의 쇠락 이후에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성립하게 된다⁹⁾. 그러므로 그 이전 전기가야 시기에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부산 복천동고분군을 제외하고서는 가야를 논할 수 없음을 당연한 일이다. 가야 역사 복원의 완결성은 부산 복천동고분군 집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 고분군 입지와 무덤조영의 기획성과 규칙성

- 수장묘의 탁월한 입지선정과 순차조영 -

가야 고분군의 특징은 하나의 묘역에 수장묘를 비롯하여 상위계층자와 하위계층자의 무덤들이 혼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여 이들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것은 아니고 신분과 계층에 따라 점유하는 공간이 달라 공간분할이 이루어져 있다.

묘역은 대부분 구릉상 입지를 택한다.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형성된 평탄지에는 최고 위계의 수장들이 안치되며 그 주변에 차상위자나 또는 호위무사나 시종과 같은 주인공과 관계가 있는 신분자들이 묻힌다. 이

9) 김두철, 『加耶 轉換期の 墓制와 繼承關係』, 『考古廣場』, 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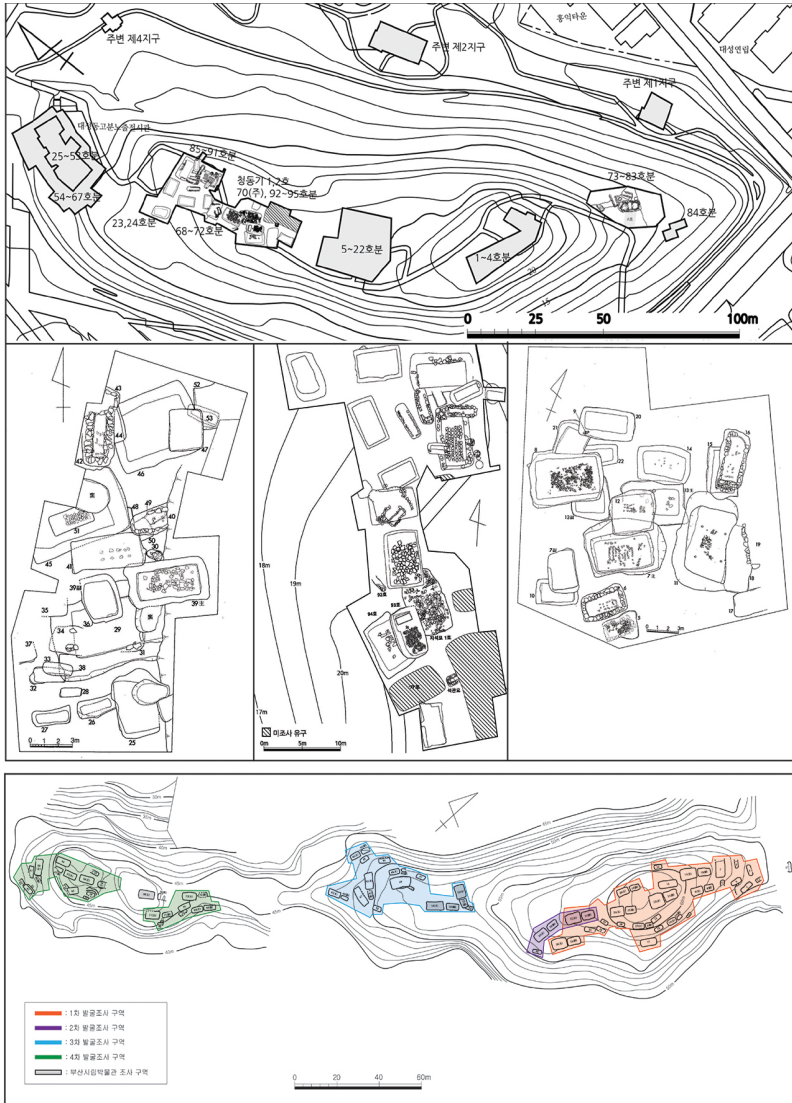


그림 2. 전기가야 왕묘역의 무덤배치도
(상: 김해 대성동고분군, 하: 부산 북천동고분군)

시기에 수장 무덤이 구릉 정선부를 택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고분으로서 피장자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보다 하위 계층의 신분자는 주변 사면부에 자리한다. 사면부에 조영된 무덤들도 등고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신분 차에 따라 차이를 두고 조영된 경우가 일반적이다¹⁰⁾. 그것은 무덤의 크기나 부장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성동고분군에서 기층민의 무덤은 수장의 묘역을 벗어난 가까운 곳에 별도의 묘역을 갖기도 한다. 구지로고분군이 바로 기층민의 묘역이다.

전기가야에서 구릉 정선부에 조영된 수장묘들은 이른 시기의 무덤일수록 구릉의 아래쪽 선단부에 입지하며 차차 구릉의 높은 곳을 향해 조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애초 조상격의 수장무덤이 조영될 때부터 후대의 계승관계를 고려하여 묘역 전체를 기획한 결과이다. 대성동고분군의 최초의 수장묘와 최후의 수장묘인 29호분과 1호분의 입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복천동고분군에서도 4세기대와 5세기대의 무덤이 조영된 위치를 보면 같은 현상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5세기대 복천동의 수장묘들은 구릉 아래쪽인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해 묘역이 끝나는 지점까지 순차 조영되었다고 할 만큼 규칙성을 보인다. 그 결과 묘역에 수장묘가 조영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39호분이나 53호분과 같이 묘역 내 빈 공간을 찾아 조영되거나 연산동고분군과 같은 새로운 묘역을 찾아 수장 무덤이 옮겨 가기도 한다.

이처럼 수장묘역 내 공간분할과 입지 원리, 무덤 조성의 기획성과 규칙성은 가야 고분군에 일반적인 공통성이자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들과는 달리, 전기 가야의 대표 고분군인 대성

10) 金斗岳, 『馬具를 통해 본 가야와 백제』, 『加耶와 百濟』, (제6회 가야사 학술회의), 김해시, 2000; 『棺床과 前期加耶의 墓制』, 『韓國考古學報』, 75, 2010.

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간에도 무덤 조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다. 그 하나가 무덤 간의 중복 축조이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무덤 상호 간의 중복이 매우 심한 편인데 반해, 복천동고분군에서는 이러한 중복관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성동고분군에 보이는 후대 무덤이 선행 무덤을 파괴하고 조영되는 현상은 묘역 내 공간 확보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김해지역에서는 이곳 외에도 양동리고분군, 예안리고분군 등등 많은 고분군에서 똑같은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고분군에서의 무덤 중복은 경주 적석목곽분의 무덤 연접현상과는 달리 친연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규칙성을 파악하기도 어렵다¹¹⁾.



그림 3. 대성동고분군의 모형 변화 (좌: 91호분, 우: 88호분)

현재로서는 지역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부산의 복천동고분군과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양자의 출계가 다르다는 증거의 하나로 파

11) 金斗喆, 『金海 禮安里遺蹟의 再檢討-性·年齡을 통한 社會構造 復原 試案』,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鶴山 金廷鶴博士 頌壽記念論叢) 학연문화사, 2000.

악해두고자 한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무덤의 두향과 관련한 문제이다. 복천동고분군에서 구릉 정선부의 수장 무덤은 구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두향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여타의 무덤들은 그 중심고분을 둘러싸는 형태를 취하면서 등고선에 평행하는 방향으로 축조된다. 경사면을 가로지르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다.

이에 반해 대성동유적에서는 유구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연접한 시기의 고분인 91호분과 88호분을 참조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고분은 모두 다인수의 순장자를 가지며 묘광의 길이가 8m를 넘는 대형분(88호: 810×450cm, 91호: 820×480cm)으로서 수장급 무덤에 해당한다.

그런데 4세기 2/4분기(후반)에 비정되는 91호분은 유구가 90cm로 얇고 바닥에는 관상이 없으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이 고분과 인접해 있으면서 4세기 3/4분기(전반)에 비정되는 88호분은 유구의 깊이가 170cm로 훨씬 깊어졌으며 바닥에는 관상을 마련하였다. 장축은 91호분과는 거의 직각으로 꺾인 남북향이다.

시기적으로 이어지고 위치에서도 매우 인접한 이 두 고분의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首長權 交替’와 같은 보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유구의 장축방향만을 기준하여 같은 방향의 무덤들을 같은 계보로 간주한다든가 하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하여도 대성동고분군에 보이는 이러한 무덤의 중복 현상, 무덤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이 수장묘 집단의 사회가 매우 격동적이고 변화가 많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부산 복천동고분군 집단은 수장권 계승이 원활하였으며 매우 안정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포구를 가진 해상왕국 : 대륙과 해양을 잇는 연결고리

- 생활유적 동래패총과 연계된 가야 해상세력 -

가야 전기에 낙동강하구역의 복천동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의 세력이 영남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중심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터전으로 한 입지도 크게 작용한다. 대성동고분군 세력이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낙동강하구에 입지하였다면, 복천동고분군 세력은 수영만에 접해 있어 바다와 내륙이 만나는 접점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복천동고분군 아래로도 적황색토로 된 얇은 구릉이 남으로 뻗어 있고 그 말미에 동래패총이 형성되었다. 그리고는 온천천에 이른다. 최근 동래패총 지역(낙민동 100번지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¹²⁾. 현재는 바다까지 직선거리로 4km이지만 고대 가야 때는 수영만이 이곳까지 확장된 셈이다. 곧 동래패총은 복천동고분군 집단의 포구가 있었던 마을인 셈이다.



그림 4. 복천동고분군의 포구, 동래패총 (좌: 항공사진, 우: 동래패총의 유적 범위)

12) 경상문화재연구원, 『부산 낙민동 100번지 유적』, 2018.

대성동고분군이나 복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에는 직접 중국 (북방)이나 왜로부터 전해진 유물이나 교류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여 만들어졌을 유물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유기질의 물질자료까지 포함해 상정한다면 당시의 교류 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바다를 끼고 있는 두 유적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은 풍부한 자원인 철을 매개로 하여 이러한 해상활동의 거점으로서 중계무역을 장악함으로써 이를 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 영남지역의 맹주였던 두 나라를 가히 해상왕국으로 부를 만하다.

4. 철을 장악한 전사집단(戰士集團)

- 압도적 무장력의 보유 -

가야의 힘의 근원은 철자원이다. 삼한시대에 이미 변진의 철은 한, 예, 왜는 물론 낙랑과 대방에까지 공급할 정도로 산업의 주요 품목이었다. 철은 당시로선 가장 선진 자원이었으며 가야에게는 블루오션과 같은 것이었다. 철의 생산이 늦었던 왜의 경우는 이 가야의 철을 입수하기 위하여 왜국란을 거치면서 야요이 시대에서 고분시대로 넘어가는 커다란 사회 재편 현상마저 일어난다.

풍부한 철 자원을 배경으로 바다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중계무역을 펼쳐 번성하였던 가야 전기에 중심국이었던 김해의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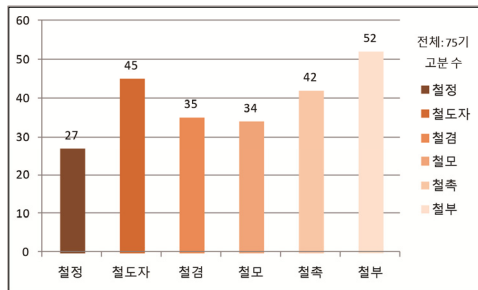


그림 5. 복천동고분군 주요철기 출토 유구수 (기보고서 발간 고분 75기 기준)

의 복천동고분군 세력이 철을 장악하고 또 이곳에 철이 집중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무덤의 크고 작음이나 파괴나 도굴을 불문하고 이미 보고가 된 유구 75기를 기준으로 그 중에서 철정이 출토된 고분은 27기에 이른다. 철정은 당시 화폐로서도, 철지금(ingot)으로서도, 매지권으로서도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며 소유자의 재부를 상징한다. 10매 단위로 묶인 것도 많으며 1호분(동)과 같이 100매가 출토된 고분도 있다.

신변 착장의 만능공구인 철도자는 45기, 농구의 대표인 철검은 35기, 무기류의 백미인 철모는 34기, 철촉은 42기, 삼한시대 이래 부장률이 가장 높은 철부는 52기의 무덤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이처럼 복천동고분군에서의 철기류 부장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밖에도 많은 철기류가 공반되어 풍부하게 철이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철기의 효능 중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무기·무구류이다.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여 만들며 많은 철이 소모되는 갑주의 출토양상을 통해서 철을 장악하였던 복천동고분군 집단의 성격 일단을 살펴보겠다.

복천동고분군에서 갑주가 출토된 고분은 미보고 자료도 포함하여 모두 35기에 이른다. 이중 4세기대의 무덤이 17기이며 5세기대의 무덤이 18기이다. 즉, 이미 전기야야 시기에 막대한 무장

표 1. 복천동고분군
시기별 판갑·찰갑 출토양상

	판갑	찰갑	전체
4세기	13기	4기	17기
5세기	3기	15기	18기

력을 보유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판갑의 경우만 하더라도 모두 16개 고분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중 13기가 4세기대의 무덤이다¹³⁾. 이 당

13) 5세기대의 판갑 3령은 전세의 가능성도 타진되는 복천동 10·11호분의 종장판갑 1



그림 6. 복천동고분군의 4세기대 무장 (좌상: 만곡종장판주, 좌하: 종장판주, 기타: 종장판관갑, 상1, 상2: 38호호분, 상3: 71호분, 상4:86호분, 하1:44호분, 하2, 하3: 57호분, 하4: 164호분)

시 찰갑도 4기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복천동고분군이 4세기대 영남의 맹주국으로서 입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풍부한 철자원의 보유와 무장력이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참고로 가야의 다른 주요 고분군과 비교하기 위하여 복천박물관에서 2009년에 발간한 『韓國의 古代甲冑』에 수록된 갑주 출토 고분의 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김해 대성동고분군 12기, 부산 복천동고분군 27기, 김해 양동리고분군 5기, 김해 두곡고분군 5기, 함안 도항리고분군 14기, 합천 옥전고분군 14기, 고령 지산동고분군 7기이다. 물론 이

령을 제외하면 복천동 4호분의 삼각판혁철관갑과 112호분의 횡장판병류관갑 각각 정도로 이 무렵 찰갑으로의 전환 정도를 짐작케 한다.

14) 이현주, 『韓國의 古代甲冑』, 福泉博物館, 2009.

제시된 자료는 시기적 한계도 있고 발굴 조사된 범위나 보고의 정도도 차이가 있어 이대로 어떤 의미를 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천동고분군의 무장력을 표현하는 데는 충분히 그리고 유효하게 참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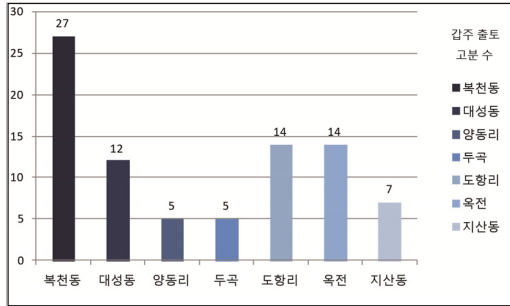


그림 7. 가야의 갑주 출토 고분수
 (『韓國의 古代甲冑』2009. 기준)

가야를 한마디로 말할 때 흔히들 ‘戰士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복천동고분군이다. 이처럼 복천동고분군 집단은 성립기부터 철을 장악한 전사의 집단이라 하여 무색하지 않다.

5. 뿌리가 있는 지역 집단

- 삼한시대를 이어온 지역 집단의 세력 계승 -

복천동 구릉에 축조된 무덤들의 조영 시기는 대부분 4~5세기대가 중심이다. 6세기 초에 비정되는 소형분들도 소수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복천동고분군은 신라 세력이 이 지역에 진출할 시기에는 고분군 자체가 폐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고분군 하한연대에 비해서 유적의 성립을 시사하는 상한연대는 훨씬 소급한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보다 남쪽으로 훨씬 떨어져 비고가 낮은 아래쪽에서 그러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제 7차 긴급조사(2002년, 복천박물관)에서 삼한시대 후기 전반의 늦은 단

계, 즉 조합우각형과수부호, 주머니호와 양뉴부옹과 같은 전기와질토기의 늦은 형식의 토기를 공반한 154호, 158호 목관묘가 2기 수습 조사되었다¹⁵⁾.

또 이곳과 인접한 곳에서 행해진 제6차 수습조사(1998년, 복천박물관)에서도 153호 목관묘, 145호, 147호, 149호, 151호, 152호 목곽묘들이 조사되었다¹⁶⁾. 이곳의 목곽묘들은 출토유물에서 보아 대부분 목곽묘 초현기의 것들이다. 결국 6차, 7차 조사에서 확인된 목관묘와 목곽묘들은 위치적으로도 인접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하는 시기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2세기 중·후엽으로 파악해도 무방하다.



그림 8. 복천동고분군의 삼한시대 토기 (좌에서: 158호분, 153호분, 154호분, 149호분, 151호분, 147호분, 우: 동래 낙민동패총)

이들 유구의 조사 지점과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복천동고분군의 위치관계를 보면, 그 사이에는 양 지점 간의 시간적 공백을 모두 메워줄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보면 그 밀도도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다. 양 지점의 유구들은 지금까지 영남지역에서 조

15) 福泉博物館, 『福泉洞古墳群 第7次調査 報告』, 2004.

16)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東萊福泉洞古墳群』, 1999.

사된 해당 시기 무덤들의 일반적인 입지와 조건을 그대로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 동래패총이다. 복천동고분군이 분묘유적이라면 동래패총은 생활유적이어서 두 유적은 세트로서 한 집단이 만들어낸 복합유적이다. 이 동래패총에서는 4~5세기의 삼국시대 유물은 물론이거니와 전 시대의 와질토기도 많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는 위 분묘 자료와 같이 후기와질토기의 빠른 자료들, 즉 목곽묘 성립기의 유물도 상당 포함되어 있어서 위의 분묘자료에서 얻은 정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때부터 동래패총과 복천동고분군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밖에 복천동고분군의 권역 내에서는 내성초등학교 부지에서 발굴 조사(1989, 부산박물관)된 2기의 파괴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주목된다. 유존상태가 조금 나은 편인 1호주거지에서는 옹 1점, 호 1점, 옹 3점 등의 야요이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주변에서 수습된 야요이토기 편들과 종합해 보면 대략 기원전 2세기 후반대의 주거지라 추정한다¹⁷⁾.

이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어떻게 삼국시대까지 이어졌을까는 현재로서는 불명이다. 다만, 앞서 본 목곽묘 성립기부터 지금의 복천동고분군이 있는 삼국시대까지는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들은 모두 단일유적인 셈이며, 복천동고분군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지금의 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쨌든 복천동고분군을 형성한 이들은 삼한시대의 세력을 그대로 계승하여 누대적으로 번성을 누려왔던 집단이라 판단된다. 성립기의 대성동고분군에 외부, 외래적 영향이 강하게 투영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점은 대성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의 집단 형성 상의 차이점으로 들 수

17) 宋桂鉉·河仁秀, 『東萊福泉洞萊城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있다. 이처럼 낙동강하구역의 두 맹주국의 연맹관계는 외부 도래세력과 토착 유력세력의 강한 유착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추정된다.

6. 독특한 수장 묘제의 채택

- 日字形 주 · 부곽식 목곽묘와 꺾쇠를 갖춘 통나무관의 채택 -

삼국시대에는 새로운 우월자의 등장으로 순장이 시행되고 후장습속이 더욱 확산되어 보다 더 많은 부장품을 넣기 위하여 부곽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곳이 낙동강하구역의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복천동고분군, 즉 구야국과 독로국의 중심지인데, 두 지역은 따로 구덩이를 판 이혈주부곽식을 갖추어 공통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두 지역만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세부에 들어가면 두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묘형에서 대성동유적은 주곽과 부곽이 직교함으로써 부곽의 길이가 폭보다 짧은데 반해, 복천동유적은 주곽과 부곽이 일렬로 놓인 日字形으로서 길이가 폭보다 긴 구조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수장묘의 장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성동고분군의 수장묘는 폭이 넓은 큰 상자관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복천동고분군의 수장묘는 대형의 통나무관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대성동은 바닥에 돌을 편평하게 깔 平床을 관상으로 사용하고 복천동은 관상으로서 고발식 통나무목관의 바닥면을 고려한 凹床을 채택한다. 이처럼 수장묘에 사용되는 목관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목관을 결구하는 데도 대성동은 꺾쇠와 관정을 혼용하는 것에 반해 복천동은 각각 반으로 잘랐던 상관(뚜껑)과 하관(안치관)을 아래위로 결합하기 위한 꺾쇠만을 사용한다¹⁸⁾.

이러한 묘형과 목관의 안치와 같은 장의의 차이는 두 지역이 서로 출

18) 金斗喆, 앞의 논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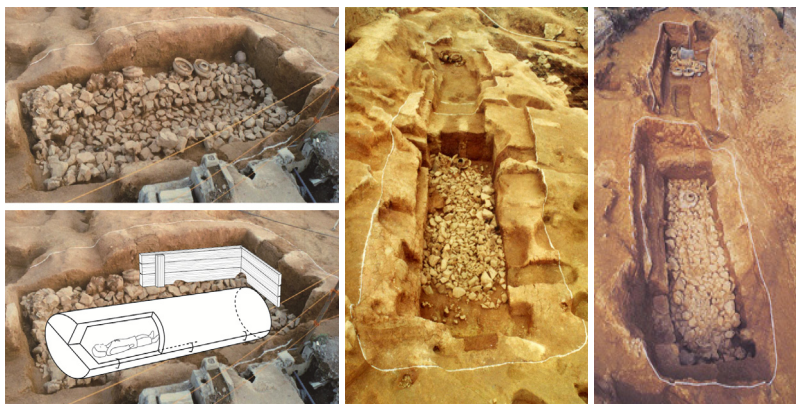


그림 9. 복천동고분군의 모형(日字식)과 관상(凹床)
(좌: 73호분, 중: 42호분, 우: 69호분)

계가 크게 달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양자는 이처럼 출제는 서로 달랐지만 묘제와 유물부장에서 공통하는 제의를 행한 것에서 전기가야 연맹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다.

한편, 복천동고분군의 목관 결구에 사용된 꺾쇠는 현재의 자료로 보는 한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사용례로 판단된다. 이전 시기 즉, 다호리 1호묘와 같이 삼한시대에도 고발식 목관이 사용되었지만 꺾쇠는 사용되지 않았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목 가구에 쇠를 꺾어서 고정하는 사용례가 있지만, 모양이 똑같지 않고 무덤의 목관에 사용한 예는 복천동고분군에서 처음이다. 이후 영남지역은 물론 일부 일본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복천동고분군의 대형 목곽묘들은 단독곽식과 주부곽식의 두 종류가 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복천동고분군은 크게 2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고분이 대체로 아래에서 위로 순차 조영됨에 따라 북쪽 구릉에는 5세기대의 무덤이, 아래쪽인 남쪽 구릉에는 4세기대의 무덤들이 주로 자리한다. 이 남쪽 구릉의 정상부에 주부곽식 무덤으로서 최초의 수장묘

로 추정되는 38호분이 입지한다.

그보다 아래인 남쪽 구릉 말미에는 단독곽이 주로 조영되었다. 여기에는 38호분보다 선행하는 대형묘들도 있는데, 그 중 규모가 큰 것이 84호분이다. 이 84호분은 바닥이 편평한 무시설의 구조이나 길이 40cm에 달하는 초대형급의 꺾쇠가 목관 결구에 사용되었다. 현재로서는 최초의 꺾쇠 출토 예라 할 수 있다.

복천동고분군에서는 이 초출 사례 이후 꺾쇠는 길이도 20cm정도로 줄고 사용례도 전형화 되어 38호분과 같은 통나무관을 사용한 수장묘의 목관 결구에 사용되게 된다. 이것이 영남 각지에 확산되었으며 길이도 차차 작아지고 규격화 되어 간다.

이처럼 복천동고분군에서 행해진 독자적인 장법과 새로운 창안은 확고한 수장권의 확립과 철의 장악을 통해서 가능하였던 일로서 이후 특히 가야 제국의 장의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Ⅲ. 5세기대 복천동고분군의 위상과 역할

영남지역에서 복천동고분군 집단의 위상과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5세기 전반대이다. 고구려 남정 이후의 사회변동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영남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가야 연맹의 쇠퇴 이후에도 후기가야의 성립을 전인하기도 하고 왜의 중기고분 사회로의 전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라의 귀족문화 성립에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의 복천동고분군 집단은 가히 ‘가야변혁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필자는 대성동고분군에 수장묘 축조가 중단하고 이어 후기가야 중 처음으로 아라국이 성립하는 것을 획기로 보아 5세기 1/4분기와 2/4

분기의 경계를 전기가야의 해체와 후기가야의 시작으로 파악한다¹⁹⁾. 그런데 복천동고분군의 주도적 역할은 고구려 남정 직후인 5세기 1/4분기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고분군이 존속하였던 6세기 1/4분기까지의 복천동고분군의 역할과 그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난국에 적응력이 빼어난 집단

- 선진 고구려 문물의 수용과 새로운 문물의 창안 -

경자년(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전기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구야국과 독로국은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 종래의 위상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패전의 그림자가 짙다. 연맹관계에도 상당한 금이 간다. 이후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아가기 위한 양국의 대처 방안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중국에 수장묘 축조 중단이란 사태로 나아가지만,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더욱 활발하고 왕성하게 수장묘 조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남정 이후 5세기 1/4분기 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 묘제 상으로는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종래 편평하고 다소 큰 할석을 판상으로 깔았던 관상이 잘게 썬 할석을 역상석처럼 전면에 까는 관상으로 바뀌는 정

19) 필자는 지금까지 고구려군 남정 이후 대성동고분군에서 ‘수장묘 축조중단’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도 전기가야 연맹 실세의 하나였던 복천동고분군의 역할에 주목하여 복천동고분군에서 고유의 무덤이 축조되던 시기(전기가야 시기로 인식 : 복천동 10·11호분→53호분 단계 : 5세기 3/4분기 빠른 단계)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고총 축조시기(후기가야의 성립 시기로 인식 : 지산동 (73호분)→35호분 단계 : 5세기 3/4분기 늦은 단계)의 경계를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획기로 보아왔다.

이를 최근에는 전기가야 연맹의 해체시기(대성동고분군 수장묘 축조중단 시기 : 5세기 1/4분기)와 후기가야의 하나이며 최초로 성립된 아라국의 성립(5세기 2/4분기) 시기가 연쇄반응으로 맞닿아 있어 이를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획기로 삼는다. 이는 신경철의 기존 입장에 공조한 것이며 필자 관점을 적어도 한 단계는 소급한 것이다. 획기를 보는 관점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밝혀둔다(申敬澈,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1995).



그림 10. 낙동강하구역 수장묘의 5세기초 묘제 변화
 (상: 4세기대, 하: 5세기초, 좌: 김해 대성동고분군, 우: 부산 복천동고분군)

도로서 소극적이다. 이 시기에 비정되는 대성동 1호분, 7호분, 11호분에서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반면 복천동고분군에서는 수장급의 무덤으로 새로이 다양한 묘제가 채택되는 변화를 보인다. 35·36호분, 25·26호분의 주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많은 돌을 쌓아 凹床을 만드는 종래의 전통을 계승한 무덤이 있는가 하면 31·32호분의 주곽과 같이 전면에 할석을 편평하게 깎 묘제도 출현하였다. 이 무덤은 돌과 흙을 혼용하여 판축상으로 목곽을 보강함으로써 이후 경주에서 출현하는 적석목곽묘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김해지역에 유행하였던 석곽묘도 93호분처럼 차상위자의 무덤으로 채용되어 이후 수장묘의 주요제로 채택된다.



이처럼 이 무렵 대성동고분군의 수장묘는

그림 11. 5세기 초의 丄자형 환관비와 판비
 (좌: 복천동 31·32호분, 우: 35·36호분)

활력을 잃고 축소중단으로 이어짐에 반해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주묘제가 정해진다. 복천동고분군 집단의 난국에 대처하는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부장유물에서도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변화로서 고식도질토기에서 신식도질토기로의 변화를 주도하였고, 전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전비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그 결과 무장분야에서 고구려 문물의 모방과 독자적인 새로운 창안이 다양하게 일어난다. 마주의 채용, 마갑 조립기법의 독자성, 이를 통한 중장기병의 완성, 1자형 환판비의 개발, 방형외환의 한 가닥 인수 채용 등등이 모두 이때에 이루어진다.

실로 당시 복천동고분군 집단은 연맹 해체의 수순을 밟아간 대성동고분군 집단과는 달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활발한 모색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2. 전사집단의 재도약

- 무장력의 비약적 발전 -

고구려군 남정 이후 영남 사회의 혼란기에 복천동고분군 집단이 취한 각종 역할과 활약은 실로 두드러진다. 앞서 본 묘제의 변천뿐만이 아니라 무장력의 강화는 매우 획기적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로소 중장기병전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완비해갔다는 점이다²⁰⁾.

중장기병전술이란 사람과 말이 모두 갑옷과 투구로 중무장을 하고 긴 창을 이용하여 적의 대오를 깨부수는 전술로서 이는 오호십육국시대

20) 김두철, 『고대 기마문화의 획기 : 중장기병전술과 마장제』, 『馬』, 국립제주박물관, 2014.

북방의 기마민족이 중원의 도시권에 진출하면서 개발되어 확산, 확립된 전술이다. 당시 가장 발달되고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것이 고구려이다. 이 전술은 인마에 씌운 무거운 갑주의 무게로 인해 기동성에 약점을 보여 수와 당대를 거치면서 경장기병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 사회에 이러한 전술이 들어온 것은 가야 성립기에 북방문화가 전해지면서 부터이다. 철제 갑주로의 변화, 긴 인수의 재갈과 경식 안장 및 목심등자를 사용한 1인기승용 마구를 구비하고 연미형철모를 장착 함으로써 중장기병의 기본 형태를 갖춰간다. 하지만 마갑주가 결합되어 당시의 장비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무장은 당시의 지배층에 독점되며 관할 통제에 소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²¹⁾.



그림 12. 북천동고분군의 5세기대 무장 (좌에서: 10호분 마주, 21호분 경갑, 11호분 경갑, 11호분 평갑, 11호분 찰갑, 21호분 요갑)

4세기대의 이러한 불완전한 양상은 중장기병 전술을 완벽히 구사하였던 고구려군이 남정해음으로써 영남사회에 큰 변화가 야기된다. 이때 부터 비로소 마갑과 마주까지 갖춘 완전한 모습의 중장기병이 나타난다. 북천동35·36호분의 마갑은 영남지역에서 가장 빠른 예 중의 하나이다. 또 갑옷은 종래의 판갑 중심에서 기능이 더욱 우수한 찰갑으로 급

21) 金斗喆, 『前期加耶の馬具』, 『加耶史論集』 1, 김해시, 1998.

격히 전환한다. 4세기대에서 5세기대로 넘어오면서 북천동고분군에서 판갑과 찰갑의 비율은 13:4에서 3:15로 바뀐다. 이러한 무장에서의 변화들은 고구려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적극 모방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또 한편으로는 독자의 창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마장구의 예가 북천동 31·32호분에서 초출한 ‘ㄱ자형 환판비’의 개발이다. 이 형식의 재갈 자체가 초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유의 입문을 위로 두었을 때 함외환이 수평 방향으로 물리는 이 연결방법은 판비에도 적용되어 고구려나 중국 동북지역에서 사용되는 수직 방향의 연결방법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여 이후 남부 사회의 지역 특징을 이루기도 한다²²⁾.

북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군비확충은 단지 무장구의 구비에만 거치지 않고 무장의 지역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까지 이어진다. 영남지역에서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것이 북천동고분군 세력이란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3. 신식도질토기의 발원지

- 전통과 변화의 조화 : 신라 토기의 모태 -

도질토기를 고식과 신식으로 나눌 때, 각각 낙동강하구(하류)양식과 내륙양식으로 불리던 4세기대 토기들을 고식도질토기라 한다. 고배와 기대를 기준으로 하면 전자는 외절구연고배와 내만구경의 파수부노형 토기를, 후자는 통형고배와 외반구경의 무파수부노형토기를 제각기 지표유물로 한다. 신식도질토기는 이들과는 기종 구성은 물론 제작 양식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며 고식에 이어서 유행한 일군의 도질토기를

22) 金斗喆, 『三國時代 轡의 연구-轡의 系統研究를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말한다. 쉽게 말해 고배에서는 이단교호투창고배의 출현을 지표로 삼으면 된다.

이들 신식도질토기는 고구려군 남정이 계기가 되어 이후 영남지역의 요동치는 사회 분위기와 연동해 출현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정신範型的 변화로서 나타난다. 신식도질토기가 출현하고서 고식과 신식의 과도기이자 교체기는 5세기 1/4분기이다. 이후 2/4분기가 되면 새로운 형식의 토기들은 다양성을 벗어나 전형화 한다. 이를 계기로 가야토기와 신라토기가 분화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²³⁾.

국내의 연구 경향은 2단 투창 고배의 경우 상하 일렬투창이면 가야토기로, 상하 교호투창이면 신라토기로 간주하는 이상하고 단순한 감별법이 오랫동안 뿌리내려왔다. 심지어 이들 토기의 분포를 기준으로 가야와 신라의 영토나 경계를 긋는 논리의 핵심근거로까지 비약해왔다. 그 결과 5세기 전반대의 복천동고분군이 신라의 관할로 둔갑하고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은 모두 신라유물로 탈바꿈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논리가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신봉되고 있다는 것이 현 학계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2단 교호투창 고배를 신라토기로 통칭하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출현기가 아닌 이후 시기의 일이며 그것도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렇게 통칭되는 토기들의 발원지는 부산 복천동고분군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빠른 형식의 (3단) 교호투창 고배가 출현한 것이 5세기 1/4 분기에 비정되는 복천동 31·32호분이다. 복천동고분군에서 1/4분기에 하나의 기종이라도 매우 다양한 형식의 토기들이 제작되어 한 고분에 수많은 형식의 토기가 혼재할 정도로 많은 試作品들이 생산된다. 여

23) 申敬澈, 「新羅土器의 發生에 對하여」, 『韓日古代文化的 諸問題』, (財)韓日文化交流基金, 1986.



그림 13. 2단교호투창고배 (좌상: 31·32호분, 좌하: 21·22호분, 우상: 부산 북천동, 우하: 경주 미추왕능 지구)

기에는 고식도질토기도 혼재한다. 당시 경주에서도 신식도질토기가 생산되나 여기에 부산과 같은 고식도질토기가 공반할 가능성은 만무하다.

전형화가 이루어진 5세기 2/4분기에는 부산 북천동 21·22호분, 19·20호분이나 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과 같은 동 시기 많은 고분에서는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3단각의 2단 교호투창 고배가 출토된다. 부산이나 경주, 실은 창원, 함안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토기 제작기술과 관련한 정보가 공유되며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중에도 부산과 경주에서 생산된 똑같은 기형과 크기의 토기가 태토나 소성 색조는 달라서 제작기의 가마에서 구워졌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5세기 전반대 영남지역 신식도질토기 생산의 실상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곳을 추정함에 있어서, 단지 교호투창이라 하여 경주를 중심에 두고 시발지로 보려는 신라토기론은 문제가 있다. 이는 신식

의 교호투창 고배를 귀결점으로 보고 복천동과 같이 고식과 신식의 혼재를 과정으로 보려는 기계적 인식론의 결과이다.

관점을 바꾸면, 경주는 전통의 토기생산 기반이 없었기에 교호투창 고배와 같은 신식도질토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에 비해서, 부산은 토착의 생산기술이 있었고 그 전통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식과 신식의 양자가 일시 공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논리의 진위는 과연 어느 지역에서 2단 교호투창 고배만이 아닌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종류의 신식도질토기가 주도적으로 생산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신식도질토기 중에 고도의 제작기술과 생산(소성)기술을 요구하는 대형 토기인 통형 기대나 발형기대의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신식도질토기 중에서 경주가 경주다운 토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황남대총 남분 이후이다. 필자가 신라 중기양식으로 부르는 토기들로서 2단각의 2단 교호투창고배, 대각축소형꼭지 부착의 뚜껍 공반, 다양한 집선문 장식의 시문 등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군의 토기들이 이때부터 경주의 중심지고분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²⁴⁾. 또한 대형의 기대를 만들어 항아리를 올리는 것 대신에 항아리 아래에 대각을 붙이는 대부장경호가 유행한 것도 이때 경주의 공인들이 구사한 토기제작 전략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신식도질토기는 토착의 토기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복천동고분군의 공인들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형화에 이른 소산이며, 여기서 신라토기로 통칭되는 토기들이 탄생되었다고 본다.

24) 金斗喆,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 『한국고고학보』 80, 2011.

4. 거대 토목 기술의 효시

- 가야 묘제를 대표하는 석곽묘에 거대 개석을 올린 무덤의 시작 -

종래 가야의 대표 묘제로 알려져 왔던 수혈식석곽묘는 낙동강 하구의 해안에 연한 지역인 김해와 부산의 서부지역에서 4세기 중경에 출현한다. 출현 당시는 목곽묘가 최고 위계자의 무덤으로 사용되면서 석곽묘는 그 하위 위계자의 무덤으로 채택된다. 대성동고분군의 예로 보면 구룡 정선부에 대형 목곽묘가 조영되고 석곽묘는 그 아래 사면부 등에 축조되어 계층 차이를 반영한다든지, 혹은 김해 칠산동고분군 등과 같이 주변 지역에 따로 묘역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부산 복천동고분군에 이러한 석곽묘가 채택되는 것은 5세기 초가 되면서부터이다. 5세기 1/4분기의 사회변동에 연동해 전통 묘제 외에도 다양한 묘제가 축조되는 와중에 그 하나로 석곽묘도 채택된다. 이때의 대표 석곽묘가 주부곽식 무덤인 복천동93호분이다. 당시 이 무덤은 수장 무덤으로서가 아닌 수장묘의 주변을 둘러싼 차상위자의 묘제로 채택된다. 다만 목관을 두는 시설은 凹床으로서 통나무관을 사용하는 복천동고분군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때까지의 석곽묘는 모두 석곽을 밀폐하는 뚜껑으로서 木蓋를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93호분 역시 같은 구조를 취하였다. 이러한 석곽묘의 구조와 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5세기 2/4분기이다. 경주에서는 새로운 묘제인 적석목곽묘가 출현하는 시기와 궤를 같이 한다.

그 큰 변화란 종래 하위계층의 묘제였던 석곽묘가 복천동고분군에서 처음으로 수장묘에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복천동고분군의 수장묘들 중에서도 특히 유력자였던 복천동 21·22호분의 주곽에 석곽묘가 채택된 것이 효시이다. 이때부터 이어지는 수장 무덤은 모두 석곽묘를 채택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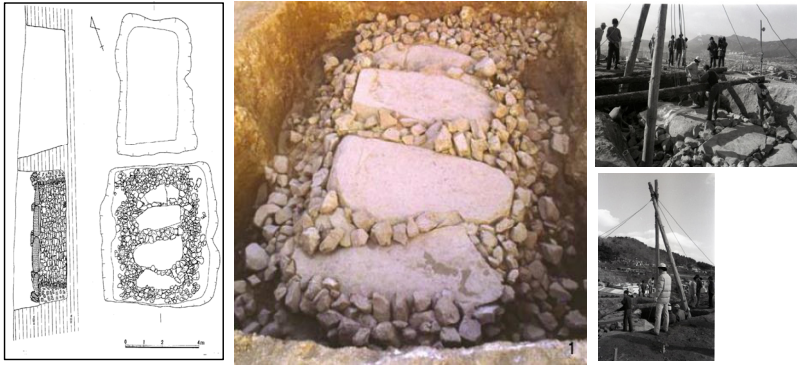


그림 14. 복천동 21·22호분(최초의 개석식 석곽묘)과 개석 제거광경

복천동 21·22호분과 이에 이어진 10·11호분, 39호분, 53호분과 같은 대형 수장 무덤들은 주곽과 부곽의 구덩이를 따로 파서 일렬로 배치한 이혈주부곽식이며 주곽에는 석곽묘, 부곽에는 목곽묘를 채용하였다. 이후 시기에는 주곽과 부곽은 모두 석곽묘로 변화하고 이를 한 구덩이 안에 마련하는 동혈주부곽식으로 바뀌며 나아가 주부곽 무덤을 하나의 석곽으로 합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²⁵⁾.

어쨌든 이 복천동 21·22호분, 10·11호분의 주곽인 수혈식석곽묘에 최초로 개석을 덮음으로써 상부 봉토의 하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이후 이어지는 후기가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석곽묘를 주요제로 채택하게 된다. 종래 가야의 대표 묘제를 수혈식석곽묘로 인식해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5) 주곽과 부곽을 두는 구덩이를 따로 파느냐, 함께 파느냐에 따라 이혈과 동혈로 구별해 부르나, 4세기대 경주식을 대표로 하는 동혈식과 이 무렵 부산의 동혈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계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는 신석도질 토기 단계에까지 와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예로서 경주 인근의 중산리유적과 같이 울산지역의 무덤들이 일자형, 횡자형, 명자형, 卜자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이를 주곽과 부곽이 어떤 식으로 조합되는가에 따라 동혈과 이혈이라는 구별법만으로 분류해 명명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결국 영남지역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한 것은 김해 구야국 하층 사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를 최고 수장묘에 채택하고 이후 가야의 대표 묘제로 발전시킨 것은 부산 북천동고분군의 독로국 세력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영남 지역사회에서 가졌던 그만큼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최초의 有蓋石 石槨墓인 북천동 21·22호분에 구현된 토목기술의 우수성은 당시로선 매우 뛰어난 것이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 정수는 거대 개석을 덮는 작업이다. 주곽은 길이 680cm, 너비 640cm, 깊이 290cm의 방형에 가까운 묘광을 파고 그 안에 길이 475cm, 너비 160cm, 높이 160cm의 장방형 석곽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최상면에는 일정한 두께로 점토를 발라 높이를 고른 후, 그 위에는 탄화된 목재를 장축 방향으로 엮고 길이 270cm, 너비 140cm, 두께 40cm 정도의 대형 개석 4매를 덮었다.

다양한 축조 기법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4매의 개석 橫架技術이다. 개석들은 하나하나가 거의 3~4톤에 가까운 무게의 것들이다. 이것을 지상도 아닌 지하에다, 그것도 현 묘광에서 개석 상면까지 130cm를 넘는 깊이까지 내려서 중앙에 위치한 석곽 위에 가지런히 덮는다는 놀라운 기술이 구사되었다.

밭굴 때에 탑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당대 최고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당시로서 최고의 기술로서 개석을 들어낸 것을 생각하면 축조 당시 어떠한 기술이 활용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노동력의 연인원 동원을 제외한다면, 경주 적석목곽묘의 축조에 비계를 세우고 봉토를 쌓는 기술보다 훨씬 고난도의 기술력이라 판단된다.

5. 왜(倭) 고분시대 중기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 영향

- 금공기술의 전파와 스에끼(須惠器) 생산에 직접 영향 -

전기가야 해체 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이주하여 왜의 고분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당시 일본에 정착한 가야계 유민들 중에는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던 공인들도 많아 일본 사회의 변혁에 크게 공헌한다. 이주의 시기는 단지 전기가야 해체 시점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어진다. 적어도 가야 제 소국이 정립한 고층고분시대에 접어들기 전에는 계속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연한 귀결로 생각되지만, 그 이후 시기의 한반도 측 이주의 창구는 부산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는 많은 물증자료가 있지만 일본 중기고분시대 변화의 한 상징이 되어 있는 滋賀縣 新開古墳 출토품과 복천동 10·11호분의 부장품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신카이고분에서 출토된 단병의 목심 등자나 삼환령은 복천동 10·11호분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병류단갑(鋌留短甲)의 출토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 무렵의 금공기술의 전파를 신라의 영향으로 인식하는 연구자가 많으나, 이는 5세기 전반대의 복천동고분군을 신라문화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론에 기인한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극소수의 단적인 예만을 들었으나, 5세기 전반과 후반에 걸친 왜의 對한반도 교류관계를 살펴보면 신라의 영향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금공기술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製陶技術의 전파에서 찾을 수 있다. 가야에서 도질토기는 3세기말에 성립한다. 일본열도에서 도질토기의 영향을 받아들여 만든 것이 스에끼(須惠器)이다. 오사카 남부의 사카이(堺)시에는 대규모 요업단지가 있어서 이는 왜정권의 官窯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것 중의 하나가 大庭寺(TG) 232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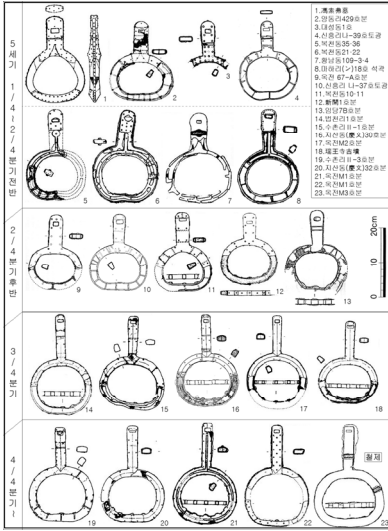


그림 15. 목심동자의 편년과
한일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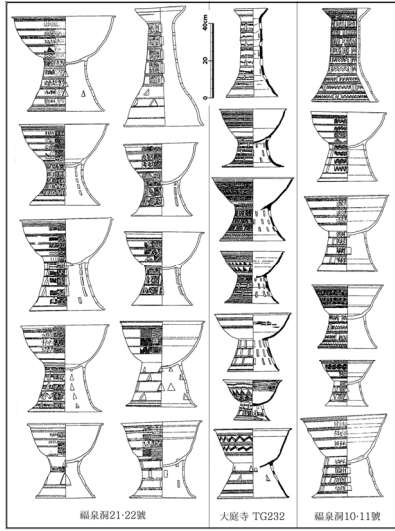


그림 16. 복천동과 大庭寺 TG232호
출토토기

마이다. 이 가마의 회원부에서 출토된 토기는 한반도 가야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흡사하다. 각 지역의 다양한 기형이 새로운 땅에서 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소성 정도는 가야의 예와 거의 같다.

그 토기들 중에는 복천동10·11호분 단계에 새로이 출현하여 특징적인 형태를 한 발형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식토기라고도 불리는 기대의 출토를 통해 이 가마의 조업시기와 기술이전의 원류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즉 복천동10·11호분을 모방하였거나 빨라도 동시기여서 한반도와는 15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스에게 생산기술이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시의 정세를 감안하면, 각지의 기술 공인들이 일본열도로 넘어간 창구도 부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⁶⁾.

26) 金斗喆, 『三國·古墳時代の年代觀』, 『한일 삼국·고분시대의 연대관(Ⅰ)』, 한국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06.

결국 가야의 많은 기술 공인들이 일본열도로 넘어가 새로운 사회 이데올로기와 왜의 중기고분시대의 특질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기가야의 해체시기에 연동해 시작되었으나 이후 사회 재편 과정에서 부산 복천동고분군 집단의 일파도 크게 활약하였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특히 당시로선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었던 제도 기술의 전파에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셈이다.

6. 신라의 귀족문화 성립에 밑거름

- 복천동10 · 11호분과 황남대총 -

신라는 경자년 고구려군의 도움을 얻어 영남지역의 패자로 부상한다. 하지만 아직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는 아니었다. 문화적으로 신라적 색깔을 띠기 시작한 것은 5세기 2/4분기부터이다. 이때 신라 마립간기의 전통 묘제인 적석목곽묘가 출현한다. 부산 복천동고분군에서 대형 개석을 가진 석곽묘가 수장묘로 채택되던 시기이다.

이때는 신라에서 눌지마립간의 치세기로서 그는 백제와도 동맹을 맺으며 부단히도 고구려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고구려의 문물을 수용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馬裝制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신라의 독특한 귀족문화가 꽃피게 된다. 그것이 눌지왕의 무덤(458년 흥)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구현된다.

황남대총의 축조는 영남지역에서 고총고분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효시가 된다. 가야 각 소국들도 이를 모방하여 일시에 독자 고총을 축조하기 시작한다. 경주가 영남의 중심으로 부각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획기적인 황남대총의 무덤에 공헌된 부장품을 보면 독자적인 새로운 요소가 포함된 한편으로 당시까지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고구려 문물과 토착(가야)문물의 적극 수용이다. 특히 관, 환두대도, 마구류 등등 위세품에서 고구려계나 가야계라 부를 수 있는 양 지역 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또 자기 방식으로 변화시켜 이후 신라의 귀족적 문물의 표본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수용의 모델이 된 가야계 문물은 바로 복천동 10·11호분 출토 유물이다²⁷⁾. 다시 말해 신라만의 특색을 이루는 화려한 문물의 뿌리에 복천동고분군 집단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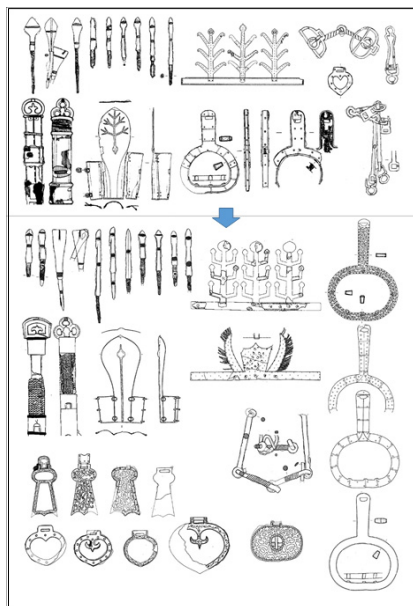


그림 17. 복천동10·11호분(상)과 황남대총 남분(하)의 부장품

7. 후기가야 多羅國 성립을 견인

- 무장 세력의 집단 이주 -

전기가야 연맹의 해체 이후, 특히 대성동고분군에 수장묘 축조가 중단되는 시점을 기해서 가야 엘리트층의 일파는 바다를 건너 왜를 향하고 일파는 낙동강을 따라 내륙을 향하면서 새로운 세상에서의 재건을 꿈꾼다.

이때부터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야 제 소국이 나라의 기틀

27) 金斗喆, 앞의 논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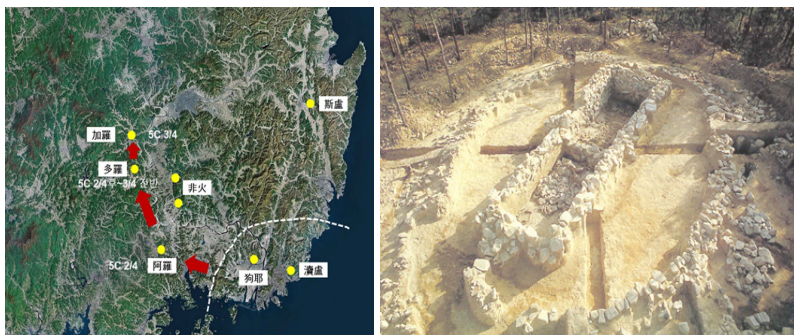


그림 18. 후기가야의 성립과정(좌)과 합천 옥전M3호분 고총고분

을 마련하는데, 바로 후기가야의 성립이다. 제일 먼저 틀을 잡은 것은 5세기 2/4분기에 성립한 함안의 阿羅國이다. 다음으로 5세기 중경(2/4분기 후반~3/4분기 전반)에 합천과 창녕에 多羅國과 非火國이 성립한다. 강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5세기 3/4분기에는 고령에 加羅國의 수장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²⁸⁾.

이 중 집단 전통성이 강한 묘형이나 목관의 구조·안치와 같은 장의의 전통을 기준으로 추적하면, 함안의 아라국은 토착세력이 유이민을 받아들여 자신의 전통과 융합하면서 사회변혁을 꾀하였고 고령의 가라국은 김해 대성동고분군 집단의 출계로서 이를 계승한 자가 나라를 세웠다고 추정된다. 창녕의 비화국은 계남리 1호, 4호분과 같이 고총 단계의 예는 알려져 있으나 성립 당시의 고고자료는 아직 조사가 미흡하다.

합천의 다라국은 그 중심이 합천 옥전고분군으로 알려졌다. 다라국은 묘의 중복관계 등으로도 알 수 있듯이 새로 온 이주 집단이 선주민을 누르고 새로이 나라를 세웠다. 그들의 출계는 부산 북천동고분군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묘형에서는 주부곽이 日字形을 띠고 있다. 주부곽이 서로 연결해 있는 것은 이 시기의 영남지역의 유행을 따른 것

28) 김두철, 앞의 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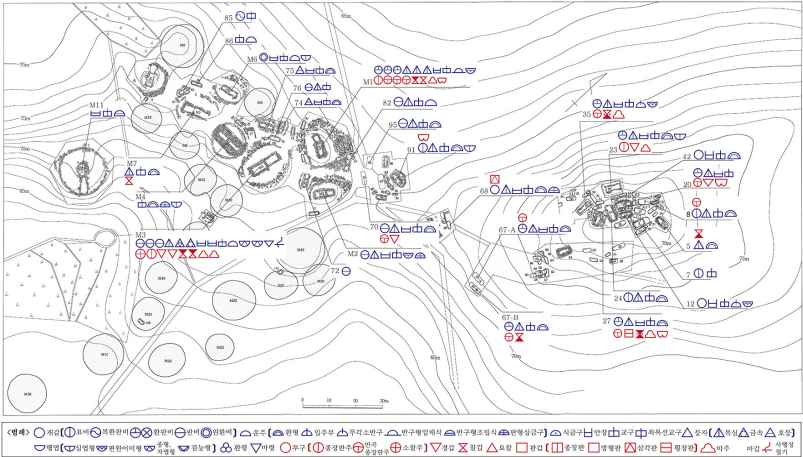


그림 19. 옥전고분군의 갑주와 마구 부장고분

으로 생각된다. 또한 목관은 통나무 목관으로서 좌우 아래에 꺾돌을 고이는 형식인 凹床을 이루고 있고 목관의 안치부(하관)와 뚜껑(상관)은 꺾쇠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이 전통은 다라국 성립에서 가야 멸망시까지 이어졌는데, 모형과 목관의 구조 및 안치방법을 생각할 때 다라국의 출계는 부산 북천동고분군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증할만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양 유적의 무장적 성격을 들 수 있다. 흔히들 가야를 ‘무사의 나라’라고도 칭하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두 유적이기 때문이다. 무기는 물론 갑주류와 마갑주류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두 고분군 지배자 집단의 중장기병으로서의 완성도와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²⁹⁾.

다라국은 입지적으로 후기가야 제소국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들의 무장력이 가야 제 소국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전기가야 시기에 북천동고분군 집단이 대성동고분

29) 金斗喆, 『多羅國의 武裝』, 『多羅國 그 위상과 역할』, 경성대학교박물관 편, 2014.

군 집단과 출제는 다르면서도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연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무장력이 하나의 전제로서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8. 연면히 이어져온 지역세력

- 복천동고분군에서 연산동 고총고분군으로 -

복천동고분군의 묘역에 정선부를 따라 순차 조영되던 수장묘가 구릉의 끝에 이르러 축조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이에 일부는 정선부의 빈 공간을 찾아 무덤을 축조하기도 하고 또 주력은 연산동고분군으로 새로운 묘역을 찾아 옮겨간다. 그 시기는 5세기 3/4분기이다. 묘역 이동의 시기는 엄격히 말하면 황남대총 남분의 영향을 받아 영남 각지에서 일시에 고총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두 고분군 대형 무덤들의 규모를 비교하면 연산동고분군 쪽이 더 월등하다. 또 무덤 바닥의 관상 구조도 종래 토착의 凹床에서 자갈을 전면에 끼는 平床으로 바뀐다. 연산동고분군은 신라의 간접 지배 아래에 들어가 복천동의 토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그래서 연산동고분군을 신라의 고분으로 보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우선 관상의 변화도 포함하여 대형 무덤에 보이는 두 고분군의 무덤 구조가 같다는 점, 나아가 관상만을 제외한다면 이전 시기의 복천동고분군 수장묘의 구조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산동 M3호분의 주부곽이 석곽묘로 바뀌면서 하나의 구덩이 안에 다시 각각을 다른 구덩이에 축조해 개석을 동시에 덮는다든지, 이후 M4호분, M8호분처럼 하나의 구덩이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주부곽을 분리한 점, M10호분처럼 부장갱을 따로 마련하는



그림 20. 연산동고분군 정비 후 전경(좌)과 동경박물관소장 전 연산동고분군 출토 갑주(우)

것들이 이전 시기 북천동고분군 수장묘의 구조를 계승하거나 이를 더욱 발전시킨 예이다³⁰⁾.

다음으로 두 유적의 입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 사이에는 온천천이 있지만, 북안의 생활유적인 동래패총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을 정도로 지근에 입지한다. 또 규모면에서 연산동고분군의 초대형급에 미치지 못하나 북천동고분군에서도 여전히 대형무덤은 축조된다. 그 중엔 북천동(동) 1호분과 같이 금동관이 출토된 고분도 있다. 당시 수장권의 계승이 한 가계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정할 수 없다. 신라에서도 내물왕대에 김씨 세습, 눌지왕대에 장자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참조가 된다.

한편, 연산동고분군에의 묘역 이동은 당시 고총고분의 축조 개시와도 깊이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경주 중심지고분군에서 초대형급 무덤인 황남대총이나 봉황대고분, 서봉황대고분은 모두 구릉의 말단부에 입지한다. 이를 모방한 가라국의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도 성립기의 고분

30) 金斗喆, 『연산동고분군과 북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高塚古墳時代の 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2016;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港都釜山』, 34, 2017.

에 해당하는 73호분, 75호분, 30호분 등은 모두 제각기 미구릉의 말단부에 입지한다. 한 고분군 내에서 수장권이 계승된 옥전고분군에서도 고총고분이 성립될 당시에는 구릉을 옮겨서 축조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총고분군에서 성립기에는 모두 각별한 입지 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연산동고분군으로의 묘역이동이 고총고분으로 시작하는 수장묘의 입지 선정에 따른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전기가야의 맹주국이었던 복천동고분군의 수장권은 후기가야에 들어서도 연산동고분군에 고총고분이 축조되는 동안에는 연면히 이어져갔다. 이 지역의 수장권이 소멸하고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고총고분의 축조가 중단된 6세기 2/4분기이다.

IV. 맺음말

복천동고분군을 제외하고서 가야의 역사를 논할 수 없음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이 고분군의 성격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신라고고학 연구자들에 의한 상반된 주장 때문이다. 신라고고학자들의 주된 주장의 근거는 너무도 단순하다.

가장 큰 근거는 이단 교호투창고배이다. 이 형식의 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을 모두 신라로 간주하는 단순한 논리구조를 아직도 신봉하는 이가 많다. 또 하나는 출자형관이나 과대금구 등 일련의 착장용 장신구를 모두 신라에 의한 분어로 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논리이다. 끝으로 가야의 영역을 멸망기의 상황을 전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범위로 시종 한정하는 논리이다.

제시된 논리가 모두 너무나 단순하나 이 단순함 때문에 파급력이 있어서인지 많은 이들이 맹신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일본 학계에까지도 퍼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세기 전반대에 행해진 복천동고분군에서 일본에 끼친 영향력이 신라의 역할로 둔갑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니 5세기 후반대의 부산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일례로서 복천동(동) 1호분을 예로 들 수 있다³¹⁾. 가야가 신라로 둔갑해 대표적 예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 문제는 먼저 학계에서 잘못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재삼재사 지적한 부산 복천동고분군의 가야사에서의 위상과 역할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론이 있다면 정당한 논리 근거의 제시를 통해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제각기 각자가 정한 틀에만 안착해 있다면 학문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가야와 신라에 대한 고고학계의 수준은 필자가 199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비의 고대왕국 가야』에서 정리한 바 있는 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³²⁾. 필자는 이미 이를 극복하였다고 자평한다. 정당한 비판을 기대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31) 이 고분에서는 2단 교호투창고배와 출자형 금동관이 출토되어 신라의 고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고배가 신라고배이며 금동관은 신라에서 분여된 것이라는 대표적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 2단 교호투창고배는 3단각고배로서 경주식토기가 아니라 당시 유행한 부산식 고배이다. 출자형 금동관은 형식적으로 보아도 신라에서 제작되어 분여되었다는 어떤 근거도 찾기 어렵다. 필자는 이를 경주의 것을 모방하여 토착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밖에 출토 유물 중에는 가야의 대표적 형식인 마구가 공반되었다. 전자의 논리대로라면 결코 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이런 논리로는 필자가 이미 주장하였듯이 연산동 고분군에서 5세기 3/4분기에 신라식인 편원어미형행엽이 유행하다가 5세기 4/4분기부터는 가야식인 검능형행엽이 유행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高田貫太, 『海の向こうから見た倭國』, 講談社, 2017, 108~114쪽).

32) 國立中央博物館, 『神祕の古代王國 伽耶 特別展』, 1991.

| 참고문헌 |

- 國立中央博物館, 『神祕의 古代王國 伽耶 特別展』, 1991.
- 경상문화재연구원, 『부산 낙민동 100번지 유적』, 2018.
- 金斗喆, 「三國時代 轡의 연구-轡의 系統研究를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1991.
- _____, 「前期伽耶의 馬具」, 『伽耶史論集』 1, 김해시, 1998.
- _____, 「金海 禮安里遺蹟의 再檢討-性·年齡을 통한 社會構造 復原 試案」,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 頌壽記念論叢, 학연문화사, 2000.
- _____, 「馬具를 통해 본 가야와 백제」, 『伽耶와 百濟』(제6회 가야사 학술회의, 김해시), 2000.
- _____,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 『港都釜山』 19, 2003.
- _____, 「三國·古墳時代의 年代觀」, 『한일 삼국·고분시대의 연대관(I)』, 한국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06.
- _____, 「前期伽耶와 新羅」,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2010.
- _____, 「棺床과 前期伽耶의 墓制」, 『韓國考古學報』 75, 2010.
- _____,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 『한국고고학보』 80, 2011.
- _____, 「伽耶 轉換期의 墓制와 繼承關係」, 『考古廣場』 13, 2013.
- _____,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 _____, 「多羅國의 武裝」, 『多羅國 그 위상과 역할』, 경상대학교박물관 편, 2014.
- _____, 「고대 기마문화의 획기-중장기병전술과 마장제」, 『馬』, 국립제주박물관, 2014.
- _____, 「高塚古墳時代의 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2016.
- _____, 「狗狍(金官)國 古墳文化의 이해」, 『伽耶의 뿌리II』, (사)가야문화연구원, 2016.
- _____,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港都釜山』 34, 2017.
- _____, 「부산은 언제까지 가야였는가?」,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1회 부산의 고대사』(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8.
- _____, 「가야사에서 복천동 고분군의 위상과 특징」, 『가야의 원류 복천동고분군과 부산』, 2018.
- 福泉博物館, 『福泉洞古墳群 第7次調査 報告』, 2004.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東萊福泉洞古墳群』, 1999.
- 宋桂鉉·河仁秀, 『東萊福泉洞萊城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 申敬澈, 「新羅土器의 發生에 對하여」,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財)韓日文化交流基金, 1986.
- _____, 「三韓·三國時代의 東萊」, 『東萊區誌』, 1995.
- _____,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1995.
- 安在皓, 「慶州地域의 初期新羅土器의 檢討」, 『福岡大學綜合研究所報』 240, 2000.
- 이현주, 『韓國의 古代甲冑』, 福泉博物館, 2009.
- 高田貴太, 『海の向こうから見た倭國』, 講談社, 2017.

투고일 : 2018. 11. 13. 심사완료일 : 2018. 12. 06. 게재 확정일 : 2018. 12. 14.
--

| Abstract |

The status and role of the Bokcheondong Tombs
in Gaya History

Kim, Doo-Chul

The Bokcheondong Tombs located alongside Suyeong Bay was the centre of the Former Gaya with the Daesungdong Tombs of Gimhae and it was the cemetery of the leader. However, it has been undervalued under the shadow of Gimhae group. After the conquest of Gogurye, it played a crucial role in developing new culture in Yeongnam area in the first of the 5th century. With emerging the culture of the Silla nobility in the latter of the 5th century, although it served as a foundation for its growing, but it was upstaged by Silla, and sometimes it was misunderstood that the Bokcheondong Tombs was already incorporated into Silla.

This paper was projected to correct this wrong perception. Based on my previous studies, it was revalued that the real status of Bokcheondong Tombs and its influence and role in developing Gaya and Silla.

As a result, although holding a common religious ceremony, but the buried leaders in Bokcheondong Tombs were different from them of Daesungdong Tombs in the 4th century. The leaders of Daesungdong Tombs had got strong foreign character, but the group of Bokcheondong Tombs was stable group based on the native society. These two group were united into Former Gaya, community and difference coexisted in two groups.

In the 5th century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Latter Gaya), the group of Bokcheondong Tombs adapted to the social change and created new type of

tomb and artifact. It influenced to the formation of the culture of Latter Gaya and Silla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culture of middle Gohun Period in Japan. In the latter of the 5th century, it lost its strength but played a role as a part of Gaya with the group of Yeonsandong Group.

Key-word: Bokcheondong tombs, Daesungdong Tombs, Gaya, Silla, Yeonsandong Tombs, Dongrae shell mound, tomb with a giant mound, tomb of a chief, warrior group, new style Dojil pottery, stone lined tomb, Former Gaya, Latter Gaya, Dara